



한국어 명사파생어 파생법

DERIVATION OF KOREAN NOUNS

Kamarova Maftuna Umar qizi

Teacher of Korean Language at Samarkand State of Institute of Foreign Languages

ANNOTATION

Derivatives play an important part in expanding the Korean vocabulary of Uzbekistan learners. Therefore, Korean language curriculums that are taught in Uzbekistan should systematically teach derivatives, an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teaching methods are urgent.

KEYWORDS: noun, derivation, noun derivative, prefix, suffix

한국어 명사파생어는 명사접두파생어와 명사접미파생어로 나뉜다.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접두사와 그 파생어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의 접두사들은 사람의 자질을 지니는 명사 어근과 결합한다.

- 가) 넷-: 넷손자, 넷할머니, 넷할아버지
- 나) 만-: 만아들, 만며느리 / 만물
- 다) 핫-: 핫아비, 핫어미
- 라) 불-: 불각쟁이, 불망나니
- 마) 여-: 여비서, 여의사, 여학생
- 바) 남-: 남학생, 남편, 남직원
- 사) 외-: 외삼촌, 외숙모, 외할머니
- 아) 친-: 친남매, 친부모, 친아들

가)의 '넷-'은 '아버지의 외숙이나 외숙모의 자기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로 다른 친족관계 어휘들과의 결합이 자유롭지 못하다. 반면에 '만-'은 '서열상 첫째'라는 의미로 서열과 관계된 친족관계 어휘와의 결합이 자유롭다. 또한 사람의 자질이 아닌 '간, 물, 내'의 어근과 결합하는데 이때에도 '첫째'의 의미로



사용된다. '햇-'은 '짜을 갖추고 있음'을, '여-'는 한자어로 '여자'의 뜻을 가지는 접두사이다. 마찬가지로 '남-'도 한자어로 '남자, 남성'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이다. '외-'는 '모계의 혈족 관계'를 나타내는 접두사인데 이는 친족 관계어와 결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은 '혈연관계로 맺어짐'을 표시하고 이와 결합하는 명사들은 '외-'의 경우와 같이 가족관계 명사이다.

다음의 접두사들은 자연 생물에 속하는 명사어기와 결합하는 것들과 무생물 및 일부의 동물과 식물, 인간에 속하는 명사어근과의 결합하는 것들이다.

- 가) 군-: 군소리 / 군일, 군식구
- 나) 막-: 막국수 / 막소리 / 막차
- 다) 메(멤)-: 메밀, 멤쌀
- 라) 참-: 참깨, 참새 / 참뜻
- 마) 암-: 암꽃, 암닭, 암컷
- 바) 수(숫)-: 수나무, 수탉 / 숫염소
- 사) 둘-: 둘염소, 둘암닭
- 아) 알-: 알밤 / 알부자 / 알뚝배기
- 자) 외-: 외곶, 외상, 외출
- 차) 흘-: 흘곶데기, 흘눈, 흘치마

위의 예시들은 동물, 식물 등 이름을 명명하는 예시이다. 한국은 농경사회 풍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사와 관련된 접두사가 많다. '군-'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 접두사로 각각 '정도가 지나친, 쓸데없는', '가외로 더한' 또는 '덧붙은' 뜻을 지니며, 결합하는 어기에 특별한 제약이 없는 아주 생산적인 접두사이다. '막-'은 '거친 또는 품질이 낮은', '닥치는 대로', '마지막'을 의미이고, '메-'는 '끈기가 없고 찰기도 없이'의 의미이다. '참-'은 '제대로 된' 또는 '충실한', '품질이 썩 우수한'의 의미이다. '암-', '수(숫)-'는 여성, 남성의 특징을 제시한다. '둘-'은 '새끼나 알을 낳지 못하는' 뜻의 의미이고, '알-'은 '겉을 덮어 짠 것이나 딸린 것을 다 제거한', '작은', '진짜 또는 알짜'라는 의미한다. '외-'와 '흘-'은 '혼자인, 하나인' 또는 '한쪽에



치우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사람, 사물, 동물 등과 결합이 가능하다.

명사 접미파생어는 어근이 명사인 경우와 어근이 명사가 아닌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근이 명사가 아닌 경우는 동사어근, 부사어근, 불완전어근 등이 있으며 어근별로 그의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명사어근 → 명사파생어

가)-꾸러기: 걱정꾸러기, 욕심꾸러기, 장난꾸러기

나)-꾼: 낚시꾼, 사냥꾼, 이야기꾼

다)-둥이(둥이): 막내둥이, 바람둥이

라)-매: 몸매, 입매

마)-새: 걸음새, 머리새, 모양새, 짜임새

바)-쟁이: 멋쟁이, 겹쟁이, 고집쟁이

사)-질: 가위질, 걸레질, 바느질

아)-찌(지): 팔찌, 발찌, 가락지

위의 접미사들은 어근의 의미를 제한할 뿐인데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다. '-꾸러기'는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으로 쓰이는 접미사이다. '-꾼'은 '어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둥이(둥이)'는 '그런 성질이 있거나 그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고, '-매'는 '생김새' 또는 '맵시'의 뜻을 의미하는 접미사인데 생산성이 낮은 편이라고 본다. '-새'는 '됨됨이, 상태, 모양, 정도, 행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로 일반명사와의 결합은 생산적인 접미사로 여겨진다. '-쟁이'는 명사 어근 아래 쓰여 '그 속성을 많이 지니거나 그 명사 어근의 그 명사 어근의 행위를 잘하거나 하는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접미사'로 역시 생산적인 접미사이다. '-질'은 주로 명사어근과 결합하여 행위명사를 파생시키는 접미사이다. 주로 '도구를 가지고 하는 일/신체 부위를 이용한 어떠한 행위/그런 일, 그런 행위와 그것과 관련된 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었다. '-찌(지)'는 일부의 신체명사와 결합하여 '끼는 장식품'을 의미한다.



아래의 접미사들은 주로 한자어 파생접미사로 구성된 접미사들이다.

- 가)-가: 문학가, 예술가, 정치가
- 나)-기: 기름기, 화장기 / 녹음기, 소화기
- 다)-단: 기자단, 선수단, 축구단
- 라)-별: 나이별, 수준별, 학교별
- 마)-사: 변호사, 요리사, 미용사
- 바)-원: 공무원, 연구원 / 대학원
- 사)-자: 유전자 / 과학자, 노동자
- 아)-증: 가려움증, 궁금증

'-가'는 '그 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나 그 분야에 뛰어나게 잘 하는 사람'을 일으킨다. 접미사 '-사, -원, -자'는 한자어로서 어떠한 직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뜻한다.

동사어근 → 명사파생어

아래의 접미사들은 동사어근을 취해서 명사파생어의 형성을 보여 준다.

- 가)-개(계): 날개, 지우개, 덮개
- 나)-거리: 먹거리
- 다)-기: 달리기, 듣기, 말하기, 보기, 살리기
- 라)-(으)ㄷ: 가르침, 느낌, 이름, 볶음, 웃음
- 마)-막: 오르막, 내리막
- 바)-뱅이: 앉은뱅이
- 사)-이: 걸이, 놀이, 설거지, 풀이

위의 접사들은 동사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형성하는 예시인데 이때의 접미사들은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꾸기도 한다. 동사어근에서 명사파생어를 생성하는 접사 가운데 '-깡이, -막, -때, -뱅이, -어지, -에기, -저지' 등은 생산성이 낮은 접사에 속한다. '-뱅이'의 의한 파생어 '앉은뱅이'는 동사어근 '앉-'에



관형사어미 '-은'을 붙인 형태로 엄격히 말하면 동사어근의 활용형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한국어 파생어 중에 극소수이고 '용언의 관형사 + 접미사'로 정리된다.

'-개(계)'와 '-기'는 동사어근과 결합하여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내며 파생의 분포가 아주 넓으므로 생성적인 접미사로 인정된다. 접미사 '-(으)ㄴ'은 동사어근과 결합하여 행위명사, 사물명사, 목적명사로 각각 만들어지며 생산성이 높다. 마찬가지로 접미사 '-이'도 동사어근에 붙어 명사를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접미사라고 할 수 있다.

형용사어근 → 명사파생어

- 가)-기: 굳기, 세기, 크기
- 나)-다리: 늪다리, 작다리
- 다)-동이 (둥이): 검둥이, 흰둥이
- 라)-(으)ㄴ: 기쁨, 아픔, 슬픔
- 마)-이: 길이, 넓이, 높이
- 바)-정 (장/영/ㅇ): 검정, 노랑¹, 파랑²
- 사)-챙이: 잔챙이

위와 같이 접미사들은 형용사 어근을 취해서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낸다. 이 접사들은 형용사 어근의 통사범주를 바꾼다. '형용사+ 접미사' 형태의 명사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예시는 많지 않지만 이 가운데는 '-지, -뱅이, -막, -보, -정이, -챙이' 등 파생접미사의 예시가 자극히 적기 때문에 생산성을 잃은 접미사로 여긴다. '-기, -(으)ㄴ, -이' 접미사들은 형용사어근과의 결합은 비교적 생산적인 접미사로 할 수 있다.

부사어근 → 명사파생어

- 가)-이: 개구리³, 똥똥이, 얼룩이

¹ 노랑-+앙

² 파랑-+앙



- 나)-쇠:덜렁쇠
- 다)-부리: 딱부리
- 라)-질: 딸꾹질, 해작질

위의 접미사들은 부사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예들이다. 이는 주로 의성어, 의태어를 어근으로 취함을 알 수 있고 자립성을 띠는 부사가 되므로 부사어근으로 분류하게 된다.

불완전어근 → 명사파생어

앞에 살펴본 네 가지의 명사 접미파생어 이외에 '불완전어근 + 접미사'의 경우도 있다.

- 가)-쟁이: 개구쟁이, 꼼꼼쟁이, 만만쟁이
- 나)-질: 다툼질, 숨바꼭질
- 다)-내기: 수월내기
- 라)-아지: 미꾸라지⁴
- 마)-이: 까불이, 멍청이, 얌전이

위의 접사들은 불완전어근을 취하여 명사파생어를 형성한다. 이 중에 많은 어근들은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접미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내는 기능으로 불완전어근으로 해당한다.

결론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우즈베크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 및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돕기 위하여 어휘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파생어와 파생접사, 즉 명사파생어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명사파생어는 우즈베크어 명사파생어와 같이 다른 품사들에 비하면 넓게 쓰인다. 명사 접두사 중에서 '막-, 알-, 날-, 암-, 수 (숫)-, 한-' 등이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명사파생접미사 중 '-꾼, -질, -쟁이, -개(계), -이,

³ 개굴 + -이

⁴ 미꿀 + -아지



-적' 등을 전형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어의 명사 접두과생어 중 사람의 자질을 의미하는 어근과 결합하는 접사들이 대수이다. 이러한 접사 중에서 '낫-, 만-, 외-, 친-' 등은 친족 관계를 나타내는 명사를 과생한다. 명사 접미과생접사 경우는 명사어근과 명사가 아닌 어근 (동사어근, 부사어근, 불완전어근 등)과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생산한다. 명사어근과 결합하는 접미사 가운데 '-꼬, -뜨기, -아리, -악서니, -작, -지(찌), -팽이, -포' 등은 생산성이 높아 많은 양의 단어를 만든다. 또한, 명사어근에 붙어 명사를 과생하는 접사 중 한자어 과생접미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한국어 과생어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자어 접미사 가운데 '-사, -인, -자, -원' 등은 어떠한 직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는 접사이고 생산력이 높다.